

16SS FRANCE

국제유행색협회(INTERCOLOR)에서 제안한 2016 Spring/Summer시즌 국가별 컬러 분석



2016년 봄, 여름의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한 INTERCOLOR의 102번째 회의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4년 5월 25일부터 27일,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INTERCOLOR는 “컬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 INTERNATIONAL COLOR CONFERENCE의 논의 하에서 1963년 처음 시작되었고, 년 2회 INTERCOLOR 회의 개최로 실행에 옮겼다. INTERCOLOR CONGRESS는 년 2회 회원국의 도시에서 진행되며, 2년 앞선 시점에서의 LOCAL COLOR CONCEPT과 회원국 제안 컬러를 통해 시즌의 컨셉과 COLOR CARD를 결정,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타일랜드, 터키, 영국)의 컬러 전문가들이 각국의 제안 컬러 발표와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해 참석하였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시선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컬러 경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봄, 여름의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한 INTERCOLOR의 102번째 회의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4년 5월 25일부터 27일,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INTERCOLOR는 “컬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 INTERNATIONAL COLOR CONFERENCE의 논의 하에서 1963년 처음 시작되었고, 년 2회 INTERCOLOR 회의 개최로 실행에 옮겼다.

INTERCOLOR CONGRESS는 년 2회 회원국의 도시에서 진행되며, 2년 앞선 시점에서의 LOCAL COLOR CONCEPT과 회원국 제안 컬러를 통해 시즌의 컨셉과 COLOR CARD를 결정, 제안한다.
한국은 1992년부터 CFT가 INTERCOLOR의 정식 멤버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음해 6월 61번째 회의부터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기 시작했다.

컬러는 모든 산업의 트렌드에서 가장 빠르게 결정되고 파급력을 가진다.
특히 각국에서 제안하는 컬러는 주요 국가와 그 인접국의 컬러 트렌드 경향 파악, 컬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의 동향, 현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기획 등 비즈니스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주목할만한 시선을 받은 그 첫번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63년 INTERCOLOR 회의의 설립 멤버로 현재 대표적인 컬러 기관 Comité Français de la Couleur (CFC, www.comitefrancaisdelacouleur.com)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 특유의 색감과 컬러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결정색 제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 Theme

COLOR LAB



프랑스는 컬러랩(Color Lab), 컬러 실험실이란 타이틀로 컬러, 빛, 소재를 통한 컬러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빛과 컬러는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21세기에 빛과 컬러는 디지털과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전달 매체가 크게 변화해 왔다. 유네스코는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선정하였고, 빛과 컬러에 대한 조명을 다시금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는 강력한 디지털 도구를 갖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자아를 실현하는 '메이커스(makers)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제조업자만이 빛과 컬러를 통제하는 시기는 지났다. 각자의 실험실에서 IT, 3D 프린팅, 디지털 아트의 재료들과 만나 의도하지 않게 우연하게 발산되는 빛과 컬러들은 그 자체로 실험적이다.

프랑스는 다양한 소재에서 빛과 컬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빛과 컬러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빛과 컬러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스마트폰, 교통, 텍스타일, 원예 및 아트 설치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되는 빛과 컬러, 소재의 다양한 관계들에 주목하자.



II. Influence

프랑스는 컬러랩(Color Lab), 컬러 실험실이란 타이틀로 컬러, 빛, 소재를 통한 컬러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컬러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컬러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주목한다.

1_BBL 200 Smart Colour LED

LED 색상 전구는 스마트폰으로 색상과 강도를 변경하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2 Lacoste Polo Shi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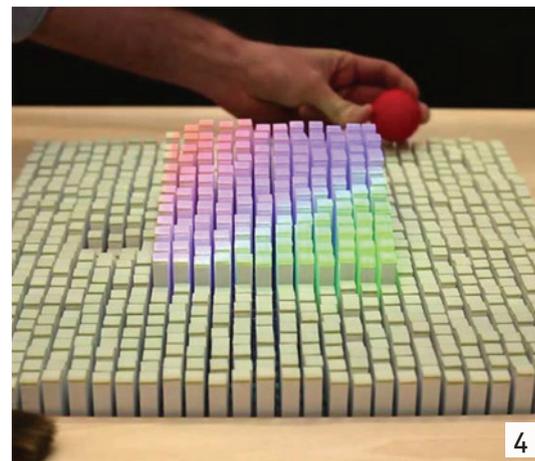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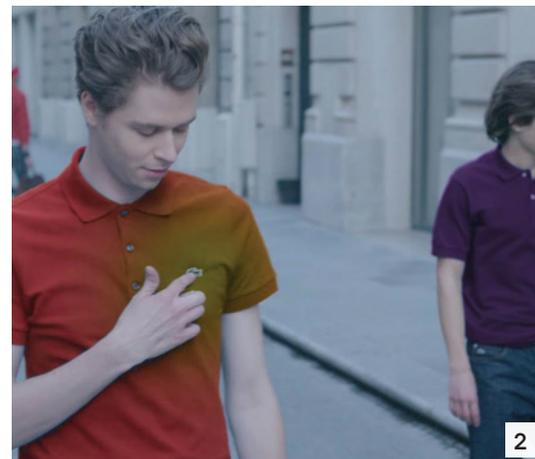
약어 로고를 터치하면 원하는 컬러로 변경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테니스 점수를 표시하며, 간단한 손 동작으로 티셔츠의 모양과 길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Mood Sweater by Kristin Neidlinger

착용자의 피부자극이 손에 있는 센서를 통해 칼라로 전달되면 기분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변화한다.

4_inFORM Tactile Computer by MIT

디지털과 인간과의 교류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하며 손의 감각인 촉감을 사용하여 핀을 움직인다.



II. Influence

5_Thermochromic Design by Jay Watson

테이블이나 의자의 표면이 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닿으면 검정색에서 갈색빛으로 컬러가 변하며 그 모양이 한동안 유지된다.



5

6_Thousand types of weather by Nadia Lichting

+ 무지개가 활용된 다양한 작품들
프리즘을 통과한 무지개빛은 햇빛의 영향을 받으며 날씨나 빛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진다.



6

7_Liquid Rainbow Machine by Edwin Deen

+ 무지개가 활용된 다양한 작품들 II
각 색마다 달려있는 스프링클러는 벽이나 빈공간에 분사되어 레인보우 패턴을 만들어낸다.



7

8_Robo-Rainbow by Akay

+ 무지개가 활용된 다양한 작품들 III
여섯개의 페인트 스프레이가 부착된 막대기를 단 자전거 트레일러가 원을 그리며 움직여 무지개를 만든다.



8

II. Influence

9. Autonomous Drawing Machines by Echo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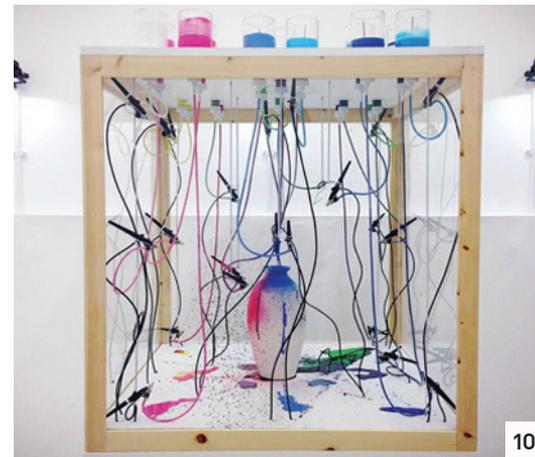
작가는 유용하거나 쓸모없는 다양한 자동 장난감에 드로잉을 재료를 부착해 기계의 연속적 움직임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9

10. Chromatography Sprayer by Lina Patsiou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하면 메시지에 맞는 컬러 스프레이가 분사되며 박스 중앙에 놓인 도자기에 분사된 컬러 물감이 묻어나면 작품이 된다.



10

11. The Future of Food by Zim & Zou

3D 프린팅 되는 음식을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3D 프린터 기술을 사용해 유틸리티 음식을 나타낸다.



11

12. Chef Jet Pro 3D Food Printer by 3DSYSTEMS

세계 최초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3D 프린터로 미세한 설탕 층이 퇴적되며 동시에 설탕의 표면에 색소가 입혀져 음식으로 탄생한다.



12

II. Influence

13_Vegetables & Fruits Ink by Raw Color

색을 낼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여 잉크를 만들어낸다. 인공적인 재료가 아닌 자연에서 오는 날 것(raw)이지만, 발색력 또한 훌륭하다.



13

14_The Sound of Taste by Schwartz

식재료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 폭발한다. 재료들이 담긴 자루에 장치를 달아 음악이 나올 때 폭발하여 극적인 효과를 준다.



14

15_Human Feelings as Drugs by Valerio Loi

보관 용기에 담긴 감정을 약처럼 복용할 수 있다. 용기 겉면에 쓰여진 감정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15

16_Designer Drugs by Steve Kratt

컬러풀한 알약을 컨셉으로 작업한 명품 브랜드. 작가는 명품 브랜드를 마약과 동일 선상에 배치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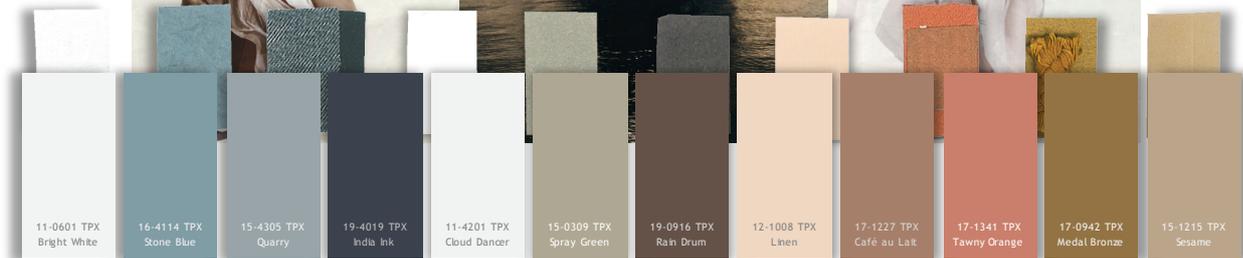
16

III. Color Proposal

남북으로의 기상여행

프랑스가 제안하는 첫번째 컬러 그룹은 남북으로의 기상여행(NORTH-SOUTH CLIMATE JOURNEY)이다. 날씨를 표현하는 다양한 컬러들, 하늘의 컬러들을 표현하는 컬러팔레트들을 주목한다.

침묵에 귀기울이고자 하는 열망은 WHITE로, GREYISH 혹은 아주 옅은 색조의 바스락거림으로 그림자와 안개, 구름, 선명한 빛들의 놀이를 표현하고자 한다. 다양한 톤의 브라운과 그레이들의 연합에 의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컬러팔레트가 된다. 사막을 표현하는 듯한 다양한 SAND와 BROWN이 COPPER 빛의 반짝 거림에 의해 재탄생된다. 컬러들은 진정성과 문화적 뿌리들 위에서 악센트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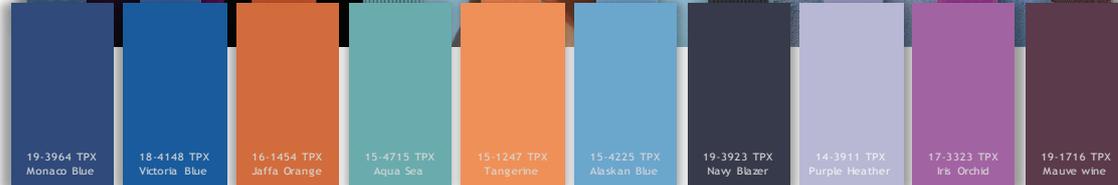
III. Color Proposal

지구는 오렌지 같은 블루!

프랑스가 제안하는 두 번째 컬러 팔레트는 '지구는 오렌지 같은 블루! (THE EARTH IS BLUE LIKE AN ORANGE)' 이다. ORANGE가 마치 자성에 의한 힘에 의해 BLUE에 이끌리듯 표현되는 넓은 컬러 팔레트가 느껴지는가?

BLUE와 ORANGE의 대조는 그래픽컬하게 혹은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예상치 못한 시각적인 대조는 종종 조화로운 그래픽 혹은 생명력 넘치는 오버 프린트로 표현된다. 신비롭고 심오한 조화들이 ORANGE와 BLUE의 역동적인 조화를 더욱 매력시킨다.

프랑스는 ORANGE를 이번 시즌의 키(key) 컬러로 제안하였고, 프랑스가 제안한 ORANGE와 BLUE의 조합은 이번 16 SPRING/SUMMER 시즌에 눈여겨 봐야 할 조합이다.



III. Color Proposal

보태니컬 오르가즘

프랑스가 제안하는 마지막 컬러팔레트는 보태니컬 오르가즘(BOTANICAL ORGASM)이다. 식물에서 느껴지는 성나고 에로틱한 감성을 GREEN과 RED의 연합으로 표현했다.

살아남은 존재로서 자연의 괴로움을 표현하며 GREEN은 전설이 된다. 미래 건축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염려와 사고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시적인 감성을 지닌 꽃들의 촉감 또는 TERRACOTTA REDs, 그리고 BROWNS가 서로 화합하기 위한 길을 찾는다. 성이 난 자연의 화난 기운은 중성의 KRAFT TONE으로 중화된다.



IV. National Color Card

16SS, FRANCE



National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렌드센터